



지난 8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상겸이 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황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은’ 김상겸…한국 첫 메달·통산 400호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김상겸(37·하이원)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첫 메달을 따냈다.

김상겸은 지난 8일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나틴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밀려 은메달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다.

이번 메달로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8년

(금33·은31·동16)의 메달을 획득했다.

평행대회전 종목은 32명의 선수가 예선에서 경쟁해 상위 16명이 결선에 진출, 16강부터 결승까지 단판 승부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김상겸은 이날 예선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 27초 18을 기록, 8위로 결선에 올랐다. 첫 경기인 16강에서는 상대 선수 잔 코시르(슬로베니아)가 넘어지면서 8강에 진출했다.

이로써 김상겸은 4번째 올림픽 도전 만에 시상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2014 소치 대회 평행대회전 17위, 2018 평창 대회 15위, 2022 베이징 대회 24위를 거쳐 이번에는 수직 상승했다.

이번 대회 직전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메달 기대감을 키웠던 평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는 16강에서 안드레아스 프로메거(오스트리아)에게 0.17초 차로 지면서 8강에 오르지 못했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은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경기에서 5연패 뒤 3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이미 5승 이상을 거둔 팀이 4팀이라 김선영-정영석은 4강 합류는 불발됐다.

10일에는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이 혼성 계주로 동계 올림픽 출발을 알린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오후 7시 59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혼성 계주 경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의 첫 메달이 결정되는 종목이다. 금메달 2개 이상을 목표로 잡은 한국 쇼트트랙이 초반 기세를 가져올 기회이기도 하다.

남녀 선수 4명이 500m씩 맡아 2000m를 달리는 혼성 계주는 초반 레이스가 중요하다. 이에 한국 대표팀은 여자 ‘에이

스’ 최민정(성남시청)을 선봉에 세울 방침이다.

혼성 계주에 앞서는 최민정과 김길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이날 여자 500m 예선에 출전한다. 또 임종연(고양시청)과 황대현(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은 남자 1000m 예선에 나선다.

이 종목들은 예선 이후 한국시간 13일 오전 준준결승부터 결승까지 이어진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도 첫 실전에 돌입한다.

여자 단거리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이 1000m 경기에 출전한다. 이들 모두 500m에 주 종목이지만, 먼저 현장 환경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설상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은 이날 오후 7시 15분 리비노 에어리얼 모굴 파크에서 남녀 예선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모굴은 스키를 타고 1m 남짓한 높이의 눈 둔덕(모굴)으로 뒤덮인 코스를 빠르게 내려온 뒤 점프대에서 날아올라 공중 연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턴과 공중 동작, 시간 간격 성적에 두루 반영된다.

남자부 정대운(서울시체육회)과 이윤송(경희대), 여자부 윤신이(봉평고)가 결선 진출에 도전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9일 오후 5시 현재 은메달 1개를 기록, 공동 11위를 달리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 스키·스노보드, 8년만 입상…이상호는 16강 마감

컬링 믹스더블 탈락…‘효자 종목’ 쇼트트랙 10일 출격

만에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었다. 앞서 이상호(백산원가드)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 사상 첫 올림픽 입상에 성공한 바 있다.

또 김상겸은 동·하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통산 400번째 올림픽 메달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하계 올림픽에서 320개(금109·은100·동111), 동계 올림픽에서 80개

이여 8강전에선 이번 시즌 3승을 거두며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 랭킹 1위를 달리던 폴란드 피슈날더(이탈리아)와 격돌해 승리하는 이번을 만들어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에게 0.23초 차 승리를 거두며 이상호 이후 8년 만의 올림픽 결승 진출을 달성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카를과 맞붙었다. 이날 김상겸은 초반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가 후반부에 속도를 높인 카를에게 결국 패했으나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역과 동행’ KIA, 다문화가족 주말 야구체험캠프

호남지역 중·고등학생 17명 참가
4회 걸쳐 기본기 교육 등 지원

KIA타이거즈는 지난 8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야구체험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시작된 야구체험캠프는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KIA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1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회차별 프로그램에 따라 기초 체력훈련과 야구 기본기 교육 등을 이수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자체 흥행전을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8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야구체험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박강산(13), 박승희(17) 학생은 캠프 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KIA는 MVP로 선정된 두 학생을 시즌 중 홈경기 시구, 시타자로 초청할 예정이다. 또 캠프 참가자 전원과 가족들을 해당 경기에 초청해 단체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강산, 박승희 학생은 “평소 팬으로

응원하던 야구를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KIA 타이거즈 코치님들께 직접 지도를 받아 더욱 뜻깊었다. 캠프 기간 도움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홈경기 시구, 시타자로 초청됐는데, 캠프 때 배운 실력을 챔피언스필드에서 멋지게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오현규, 베식타시 데뷔전서 오버헤드킥 데뷔골

뒤지던 팀에 2-2 무승부…상대 팀 황의조 출전해 ‘코리언 더비’

튀르키예 베식타시 유니폼을 입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오현규(24)가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현규는 9일(이하 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투프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라니아스포르와의 2025~2026 튀르키예 수페르리가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동점 골을 책임지며 팀의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날 최정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오현규는 팀이 1-2로 뒤지던 후반 9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높게 뜬 공을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해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두고 비디오판독(VAR)이 진행됐으나, 판독 결과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극적인 데뷔골이 완성됐다.



데뷔전 첫 골 세리머니 하는 오현규. **황남**

지난 5일 이적료 1400만 유로(약 241억원)를 기록하며 베식타시에 합류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터진 신고식이었다.

오현규의 활약은 득점에만 그치지 않았

다. 이에 앞선 전반 29분에는 페넬티킥을 유도해 팀의 첫 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베식타시는 경기 초반부터 알라니아스포르의 귀면 앞춘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다.

알춘은 전반 9분 페넬티 지역 중앙에서 낮게 깔아 찬 원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데 이어, 7분 뒤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원발로 골망을 흔들며 멀티골을 기록했다.

승부의 추가 확실하게 기운 0-2 상황에서 오현규가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오현규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얻어낸 페넬티킥을 전반 33분 키커 오르코 피크취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베식타시는 한 점 차로 따라붙었다. 이어 후반 오현규의 동점 골까지 더한 베식타시는 0-2의 열세를 극복하고 무승부를 거뒀다.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는 황의조도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코리언 더비’가 성사됐다.

연합뉴스



AI페퍼스, ‘선두’ 도로공사 제압…구단 최다승 타이

세트스코어 3-1로 역전승…올 시즌 ‘11승’ 달성

조이 31점 폭격…박은서·박정아 두자릿수 득점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위 한국도로공사를 제압, 구단 역대 최다승 타이를 달성했다.

AI페퍼스는 지난 8일 오후 4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임주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4-26 25-19 25-16 25-14)으로 승리했다. 앞서 현대건설을 3-0으로 완파했던 AI페퍼스는 이로써 2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이번 승리로 AI페퍼스는 11승 15패 승점 33점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5위 GS칼텍스(승점 41)와는 승점 차를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또 지난 시즌 달성했던 구단 역대 최다승(11승·승점 35) 타이 기록에도 성공했다.

AI페퍼스는 이날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1득점(공격성공률 54.9%)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여기에 박은서가 20득점(공격성공률 51.61%), 박정아가 11득점(공격성공률 38.46%)으로 나란히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1세트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AI페퍼스는 6-6까지 시소게임이 이어가다 상대 강소희의 퀵오픈을 허용했다. 이어 범실과 리시브실패로 7-10으로 리드를 허용했다. 조이, 박은서, 박정아 등을 앞세운 AI페퍼스는 곧바로 16-14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24-24 듀스 상황에서 연속 범실을 쏟아내면서 24-26으로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는 AI페퍼스가 웃었다. 양 팀은 10-10까지 점수를 주고 받았

다. 이후 상대 범실로 기회를 잡은 AI페퍼스가 공세를 펴으며 16-14로 앞서나갔다. 이후 박은서와 박사랑, 조이가 나란히 득점을 올리면서 20-17까지 격차를 벌렸다. 분위기가 꺾인 도로공사는 크게 흔들렸다. 조이의 3연속 득점과 상대의 범실이 또다시 나오면서 24-19가 됐고, 시마무라가 이동 공격을 성공시키며 2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3세트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AI페퍼스는 상대의 범실에 더해 박정아의 연속 득점, 박사랑의 블로킹이 타지면서 5-3으로 격차를 벌렸다. 박은서와 조이, 하혜진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15-8까지 달아났다. 세트 후반에는 조이의 오픈과 하혜진의 블로킹이 폭발하면서 25-16으로 3세트가 끝났다.

기세를 탄 AI페퍼스는 4세트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하혜진, 박정아, 시마무라가 세트 초반 점수를 빠르게 따내며 7-4로 달아났다. 승기를 굳힌 AI페퍼스는 조이의 퀵오픈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